평생 잊지못할 감동이 있는 골프장
함평 다이너스티 컨트리 클럽
예약 : www.hpdynasty.co.kr 080)320-7700

김덕현

중국 베이징 세계육상선수권 22일 개막
'자력 진출' 광주 김덕현·김국영 출사표

세단뛰기 김덕현
"결선 다시한번"

100m 김국영
"9초대 새 역사"

광주시청 소속의 '한국 육상의 간판' 김덕현(30)과 김국영(24)이 중국 베이징에서 꿈의 레이스를 펼친다. 자력으로 세계육상선수권대회 출전권을 거머쥔 이들은 "베이징에서 새 역사를 쓰겠다"고 각오를 밝혔다.

'한국 세단뛰기의 지존' 김덕현(30)은 22일 중국 베이징에서 개막하는 제15회 세계육상선수권대회 남자 세단뛰기 결선 진출을 노린다.

2007년 오사카 대회에서 한국 세단뛰기 역사상 처음으로 결선에 진출해 9위에 오른 김덕현은 8년 만에 다시 결선 무대를 꿈꾼다. 김덕현은 26일 예선을 펼치고, 성적에 따라 27일 결선 무대를 밟는다.

김덕현은 지난달 12일 일본 삿포로 아쯔베즈경기장에서 열린 '2015 한·중·일 친선육상경기대회' 세단뛰기에서 17m00을 뛰어, 올림픽 출전 기준 기록(16m90)을 넘어섰다. 17m00은 세계랭킹 17위에 해당하는 기록이다.

김덕현은 "베이징 세계육상선수권대회에서 좋은 결과를 내는 것이 1차 목표이며, 내년 리우올림픽에서도 좋은 성과를 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각오를 다졌다.

'총알탄 사나이' 김국영은 오는 22일 또한 번 남자 100m 한국신기록에 도전한다.

김국영은 지난달 열린 광주하계유니버시아드 남자 100m 준결승에서 10초16을 기록해 자신이 보유한 한국기록(10초23)을 바꿔놨다. 2010년 6월7일 전국육상선수권대회에서 한국신기록을 수립한 지 5년 만에 0.07초를 앞당긴 기록이다.

10초16은 또 다른 의미가 있다. 세계육상선수권대회와 내년 브라질 리우올림픽 출전권 획득의 기준 기록이 10초16이다. 한국육상 사상 세계선수권과 올림픽 100m에서 자력 진출은 김국영이 최초다.

김국영은 베이징에서 꿈의 '9초대'를 달성한다는 각오다. 아시아 선수 중에서는 중국의 쑤빙톈(26)이 지난 5월31일 미국 오리건주 유진에서 열린 국제육상경기(IAAF) 다이아몬드리그 남자 100m에서 9초99로 결승선을 통과해 순수 동양인으로는 처음으로 9초대 기록을 세웠다. 김국영은 이번 대회에서 쑤빙톈과 경쟁한다.

김국영은 베이징 세계선수권 이후 내년 리우 올림픽을 향해 달린다.

심재용 광주시청 육상 감독은 "두 선수 모두 이번 베이징 세계육상선수권에서 자신들이 보유한 한국기록을 다시 한 번 깨뜨리는 게 목표"라며 "그동안 열심히 준비하고 훈련한 만큼 좋은 기록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박정욱기자 jwpark@kwangju.co.kr

볼트-게이틀린 '세기의 대결'

23일 100m·27일 200m 결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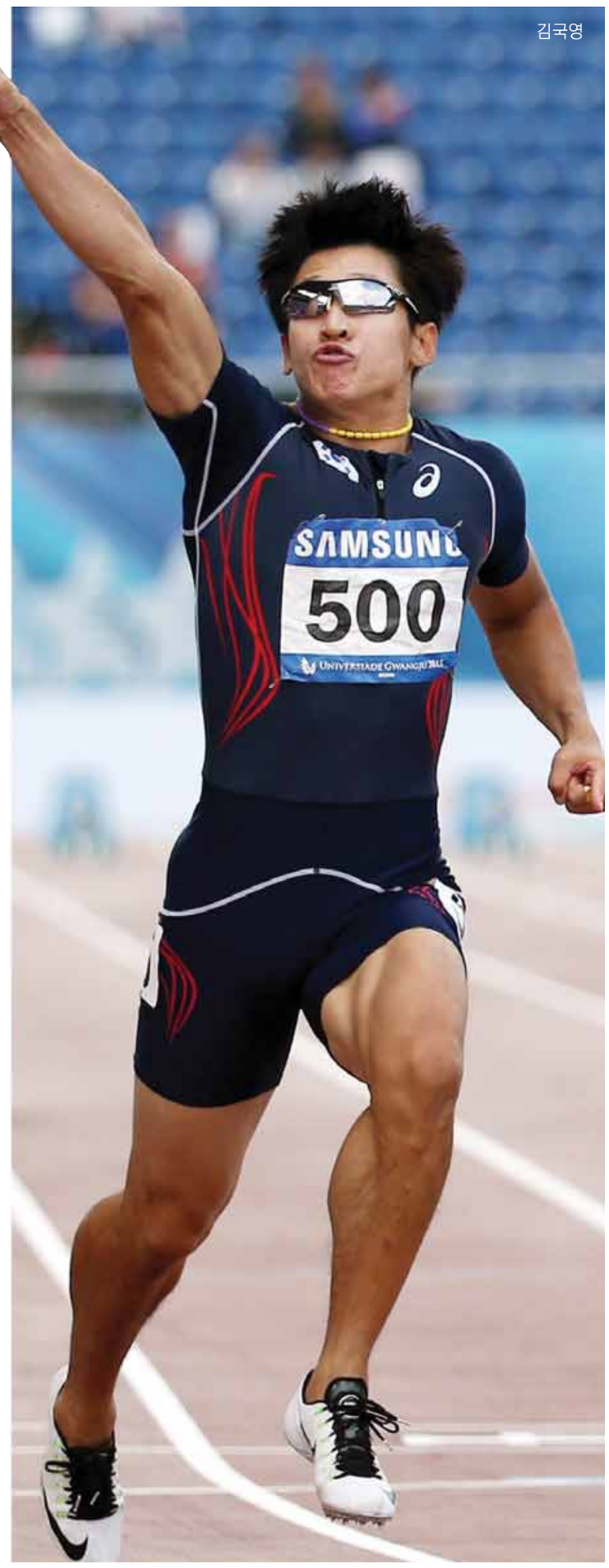
207개국 1936명이 참가하는 이번 대회에서 가장 눈길을 끄는 선수는 '세계에서 가장 빠른 사나이' 볼트(29·자메이카)다. 볼트 대항마로 꼽히는 게이틀린(33·미국)에게도 관심이 쏟아진다. 볼트는 이번 대회 100·200m, 400m 계주 출전자 명단에 이름을 올렸다. 게이틀린도 마찬가지다.

볼트는 남자 100m(9초58)와 200m(19초19) 세계기록 보유자다. 특히 올림픽과 세계선수권 등 메이저대회에 강했다. 볼트는 칼 루이스와 함께 세계육상선수권 최다 금메달(8개) 기록을 보유하고 있다.

2006년 금지약물 검사에서 양성반응을 보여 4년 출전 정지의 징계를 받고, 2010년 트랙에 복귀한 게이틀린은 '볼트 대항마'중 한 명으로 꼽혔으나 메이저대회에서 늘 볼트에게 밀렸다.

올해는 분위기는 다르다. 올해 남자 100m에서 9초7대를 뛴 선수는 게이틀린뿐이다.

100m 결승은 한국시간으로 23일 오후 10시15분에, 200m 결승은 27일 오후 9시55분에 열린다. /연합뉴스


김국영

한·일 청소년 여수서 우정 다진다

22일까지 하계 스포츠 교류전

제19회 한·일 청소년 하계 스포츠 교류전이 오는 22일까지 여수시 일원에서 열린다.

지난 16일 개막한 교류전에는 한국선수단 216명, 일본선수단 214명 등 총 430명이 참가해 축구, 농구, 배구, 탁구, 배드민턴 등 5종목에서 친선경기를 갖는다.

20일 공식경기에 앞서 연습경기 결과, 한국이 10승8패로 일본을 앞섰다. 한국은 배드민턴에서 4승, 탁구와 배구에서 각각 2승, 축구와 농구에서 각각 1승을 거뒀다. 일본은 농구에서 3승을, 탁구와 배구에서 각각 2승을 기록했다.

한일교류전은 지난 1996년 한일 정상의 문화교류 확대 방침에 따라 1997년부터 매년 정례적으로 실시하고 있다. 대상은 초등학교 5학년부터 중학교 3학년 재학생이며, 전남선수단은 한국대표로 내년 8월에 일본 지바현에서 열리는 교류전에 참가할 예정이다.

김철신 한국선수단장(전남도체육회 상임부회장)은 "지난 2007년 제11회 목포 대회에 이어 두번째로 전남에서 열린다"며 "전남대표선수들의 경기력 향상과 국제경쟁력 강화, 지도자간 지도방법 공유는 물론 세계 4대 미항인 여수와 전남을 알리는데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박정욱기자 jwpark@

제19회 한·일 청소년 하계 스포츠 교류전에 참가한 한국과 일본 학생들이 게임을 하며 즐거워하고 있다. 〈전남도체육회 제공〉

광주생활체육회, 21~22일 유소년 체험캠프

광주시생활체육회는 21~22일 이틀간 곡성군청소년야영장에서 '2015 유소년 생활체육 체험캠프'를 연다.

광주시생활체육회가 주관하고 광주시가 후원하는 이번 캠프는 소외계층 유소년들에게 건전한 여가 활용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마련됐다. 캠프는 동구드림스타트, 남구드림스타트 등 광주지역 복지시설과 연계해 평소 생활체육 및 문화행사를 접할 수 없었던 어린이 및 유소년들을 대상으로 서바이벌게임, 농촌체험활동, 천문대 관측 등의 다양한 프로그램이 진행된다.

김창준 광주시생활체육회장은 "유소년들이 건강한 정신과 신체를 가꾸는데 도움을 주고자 캠프를 마련했다"며 "앞으로 유소년 및 청소년들이 함께 할 수 있는 생활체육 사업을 더 다양하게 개발하겠다"고 말했다.

/박정욱기자 jwpark@

FIFA, 정몽준 기부금 사용처 조사

블룸버그 통신 "부회장 선거 앞두고 파키스탄에 기부"

국제축구연맹(FIFA) 윤리위원회가 차기 FIFA회장 출마를 선언한 정몽준 대한축구협회 명예회장의 과거 기부금에 대해 조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블룸버그 통신은 19일 아시아축구연맹(AFC)이 FIFA에 2010년 파키스탄 홍수 당시 기부금에 대한 조사를 요청했다면서 이같이 보도했다.

정 명예회장은 당시 파키스탄에 40만 달러(약 4억7000만원)를 기부했고, 같은 해 대지진이 발생한 아이티에는 50만 달러(약 5억9000만원)를 보냈다.

블룸버그 통신은 정 명예회장이 파키스탄에 기부금을 보낸 시기가 FIFA 부회장 선거를 앞뒀을 때라고 지적했다.

FIFA는 정 명예회장이 파키스탄에 보낸 기부금이 당초 계획대로 축구장 건설을 위해 쓰였는지 조사할 것으로 알려졌다. /연합뉴스